

고등과학원에서의 토닥 생활을 돌이켜 보며

글 _ 서검교 · 전 고등과학원 수학과 연구원 (현 숙명여자대학교 수학과통계학부 조교수)

2007년 2월에 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달에 바로 고등과학원에서 학생이 아닌 연구원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내 지도교수님이셨던 최재경 교수님께서 이곳으로 내가 졸업하기 전에 와 계셨던 덕에 어쩌면 무혈(?)입성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첫 출근을 했을 때 기억이 지금도 제법 선명하다. 당시에 여러모로 낯선 환경이었다. 시끌벅적한 대학과는 참으로 다른 환경이었다. 혼자 쓰는 연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한 연구실과 인적이 드문 화장실, 대학원생 시절의 학교식당과는 맛이 많이 다른 식당 밥, 먹을거리가 넉넉한 티타임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연구문제를 찾느라 사실 첫 학기엔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실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딸아이가 밤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해 어떤 날은 밤새 아기 재우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피곤한 심신을 달랜 적도 있다. 하지만 지도교수님과 매주 만남을 통해 가끔씩 생각해 볼 만한 좋은 문제거리를 얻었다. 그렇게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내가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가끔씩 티타임에,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주변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열심히 논의를 하는 모습과 그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은 나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고등과학원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강의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뿐만 아니라 넉넉한 연구비 덕택에 2007년 8월에 브라질에서 열렸던 극소곡면학회(이 학회는 David Hoffman과 William Meeks III의 회갑기념학회였다)에 참석할 수 있었다. 몇몇 재미있었던 강연도 기억이 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변 중의 하나라는 브라질의 코파카바나 해안에서의 물놀이도 잊혀지지 않는다. 학회에 참석하면 유명한 대가들의 강연을 듣는 것, 내가 연구하는 것과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뿐 아니라, 새로운 곳을 둘러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은 것 같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도교수님의 주최 하에 기하학적 해석학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가 고등과학원에서 9월에 열렸다. 이 학회에는 Richard Schoen(그는 내 지도교수님의 스승이니, 내게는 학문적으로 할아버지뻘이다)을 비롯한 세계의 저명한 미분기하학자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그 중에 Robert Gulliver의 강연은 내게 더 연구할 만한 문제를 가져다주었는데 그 문제는 이듬해 2008년 여름에 Italy ICTP 연구소에서 개최된 미분기하학회에서 참석하는 동안 함께 참석하였던 이들과 함께 해결하였다. 한 학회에서 문제를 찾아 다른 학회에서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리오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변

2008년 9월 초에는 딸아이를 봐주시던 아주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관두시겠다고 하고 아내도 분당에 위치한 직장을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여 우리 가족 모두 아내의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였다. 평소 1시간 남짓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갑자기 2시간으로 늘어나 내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아기는 아내 직장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기면 되고 아내도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으니 좋다는 생각도 하였지만, 막상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광역버스에 내 몸을 맡길 때에 밀려오는 피로감은 어쩔 수 없었다. 그 때문일지는 몰라도 버스 안에서 문제를 생각하고자 했던 초심과는 달리 열 번에 아홉 번은 잠이 들고 말았다. 고등과학원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한 연구원은 내게 하루에 4시간씩을 출퇴근 하는데 소비하니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6일이라며 농담을 하였다.

그렇게 먼 출퇴근 시간에 익숙해지던 찰나에 나에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12월 중순 경에 버스를 갈아타려고 뛰다가 미끄러져 발목을 심하게 접지른 것이다. 그 전날 총장면접을 봤던 나로서는 이 사건이 복선이 아닐까하는 걱정도 하였다. 결국 그 날은 고등과학원으로 출근한 것이 아니고 근처에 있는 경희대학교병원으로 출근(?)을 하였다. 왼쪽발목을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퇴근을 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iman 깁스한 다리 위에 올라타서 재롱부릴 뿐, 아내와 나는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8주 동안의 깁스 생활을 통해 비록 새로운 수학적 경험은 많이 얻지 못했지만 수학 외적(external)으로 많은 경험을 얻었다. 다치기 전에 빨리 지나치면서 보지 못했던 아파트 단지 내의 작은 이름 모를 나무들도 보았고, 버스에 힘들게 올라탔을 때 선뜻 자리를 양보해 주시던 백발의 할아버지의 따스한 마음도 느꼈었다. 목발을 짚고 걸으면 주변에 날 앞질러 가버리는 행인들 탓에, 마치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는 진실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지원했던 숙명여대에 임용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또 강의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은 어느덧 2009년 2월을 지나 3월로 넘어가고 있었다.

지난 2년간의 고등과학원에서 느낀 점을 한 마디로 말하면 ‘정중동(靜中動)’이다. 고등과학원 건물 밖에서 혹은 건물 내 복도에서의 그 모습은 조용하고 고요하다. 하지만 그 고요한 연구실 안에서는 연구원들의 열정이 꿈틀거리고 있고, 세미나실에서의 토론 열기는 뜨겁다. 수학을 포함해 삶에 여러모로 가르침을 준 고등과학원에서의 포닥 생활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KIAS](http://kias.kyushu.ac.kr)